

 국토교통부		<h1 style="margin: 0;">보 도 자 료</h1>		<small>국민의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small> 
		배포일시	2019. 12. 2(월) 총 2매(본문2)	
담당 부서	해외건설지 원과	담 당 자	• 과장 김기용, 사무관 이성훈, 주무관 이덕원, 전문위원 한희조 • ☎ (044) 201-3527, 3532, 3533	
	공항정책과	담 당 자	• 과장 방현하, 사무관 박선용 • ☎ (044) 201-4333	
보 도 일 시		2019년 12월 3일(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12. 2.(월) 11:00 이후 보도 가능		

김현미 장관, 사우디아라비아 인프라 협력·수주지원 총력

3일부터 사우디 주요 인사와 고위급 인프라 외교 통한 기업 수주지원 한-사우디 공항협력 업무협약(MOU) 체결...운영관리 분야 기반 마련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월 3일(화)부터 6일(금)까지 사우디아라비아(공식명칭 : 사우디아라비아 왕국(Kingdom of Saudi Arabia))를 방문, 우리 기업의 인프라(기반시설) 프로젝트 수주를 지원하고, 공항·신도시 개발 등 국토교통 분야 정부 간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 사우디아라비아는 우리 건설기업들의 해외 누적수주액 1위 국가*로 최근 탈석유화(Post Oil) 시대를 대비하여 “비전 2030”을 발표하여 산업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인프라 분야에서도 다양한 신도시·공항·플랜트 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다.

* 1위 사우디(누적 1,445억불), 2위 UAE(누적 780억불), 3위 쿠웨이트(누적 486억불)

- 특히, 우리나라는 사우디의 ‘비전 2030’ 실현을 위한 중점협력국가*이다. 이에, 올해 4월 한-사우디 비전 2030 협력회의를 개최하고, 6월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방한하여 한-사우디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등 양국 정부 간 협력을 지속 강화하고 있다.

* 사우디아라비아는 VISION 2030 실현을 위한 중점 협력국가로 우리나라, 미국, 일본, 중국, 인도를 선정(‘17.3)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방문기간 동안 사우디 국부펀드 (Public Investment Fund) 총재(국영석유회사인 아람코 회장 겸임), 경제 기획부 장관, 교통부 장관, 주택부 장관 등과 면담을 통해 현재 입찰에 참여중이거나 향후 발주예정인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참여방안을 논의한다.
 - 교통부 장관과 「한-사우디 공항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우리나라의 스마트 공항에 대한 기술과 경험 교류를 본격화 하며, 더 나아가 정부 간 협력을 기반으로 우리나라의 공항 건설과 운영·관리에 대한 사우디 진출 기반을 마련한다.
 - 또한, 우리 기업이 수행 중인 주요 건설현장을 방문하고 현지 경제인 간담회(주사우디 대한민국대사관 공동)를 개최하여, 우리 기업인 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장 소통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 김현미 장관은 “이번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고위급 협력은 우리나라의 해외건설 수주 반등을 위해 마련한 계기”라고 평가하며,
 - “사우디 아라비아와 건설 분야에 대한 협력은 더욱 공고히 하면서 공항 운영·관리 등 새로운 협력모델도 발굴하는 기회가 될 것” 이라고 강조했다.

  <p>공공누리 공경자격을 자유이용허락</p>	<p>이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지원과 이성훈 사무관(☎ 044-201-3527), 공항정책과 박선용 사무관(☎ 044-201-433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	--